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인물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접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말씀들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삼손도 우리가 평소에 오해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동안 들어온 삼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여자의 꾀임에 빠져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사람이다.'라거나 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이다'라는 등 주로 삼손의 여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삼손은 다혈질에 매우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설교의 메시지는 삼손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4장 문맥 가운데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의 부모에게 허락을 구한 것은 삼손이 철이 없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즉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이 딤나에 내려간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의 말씀인 13장2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즉 삼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길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도록 함께 도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손을 비롯한 사무엘 등 소수의 사람만이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사사기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나게 하셔서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즉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딤나에 내려가 블레셋을 치기 위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계획하는 이 일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13:25).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4:6).

세 번째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게 된 사람들에게 약속한 베옷과 겉옷을 주기 위해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할 때입니다. 그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19). 네 번째는 여우 삼백 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운 후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을 때 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들어 천 명을 죽였습니다(15:14).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4명의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던 기드온과 함께 삼손도 다윗 왕이나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을 조금만 거둬내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과 상황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 등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고 또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